

박은주 (김영사 사장)

“에스트를 추구하되  
‘에스트셀러 병’은 경계”



서울 가회동에 위치한 김영사 사옥에 들어서면 잠시 혼란에 빠진다. 흑시 카페로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사옥은 아름답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도 고즈넉한 공간을 사옥 여기저기 마련해 둔 것을 보면 직원들을 배려하는 사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영사 박은주 사장은 여성출판인 CEO로서 끊임없이 회사경영에 혁신을 기해온 전설적 인물이다. 박 사장에게는 ‘밀리언셀러 제조기’ 혹은 ‘출판 기획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항상 따라다닌다. 김영사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은 총집약 2000권이 넘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간 책은 300여권에 이른다. 이 정도면 ‘출판 기획의 여왕’ 등등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법도 한데 박 사장은 이런 호칭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최고 수준이라고도 한다. 최고 기업의 경영철학을 물었더니 박 사장은 첫째로 ‘정직’을 꼽았다.

“부처님께서도 정직하라고 하셨고, 남을 존중하라고 하셨고, 남과 나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내 개인의 삶 또한 부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은 두 글자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회사는 행복을 실현하는 실험장이기도 하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길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정직에 대해서도 물었다. “첫째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해요. 수입과 지출 등 매출상태를 컴퓨터에 올려놓고 어떤 직원이라도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입니다. 그날 그날의 판매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저

않다’ 등이다. 이렇게 김영사가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원고를 골라내는 박 사장의 탁월한 노하우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사장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평화출판사에 입사했다. 일에 욕심이 많았던 박은주 씨는 자신의 맡은 일 외에도 기획, 번역, 편집, 표지디자인, 제작, 광고,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배웠다. 그러다 1982년 김영사의 편집부장으로 발탁됐고, 1989년 김정섭 사장의 눈에 들어 사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때가 서른두 살이었다. “뒤돌아보니 직원일 때도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했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거든요.”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제 스님의 ‘수

도 길게 보면 나쁜 일일 수 있고, 안 좋아보여도 길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으니, 좋고 나쁨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게는 결국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판한 <만들어진 신> <투명경영> 같은 책은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했기에 낸 것입니다.”

박 사장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백여 명에 가까운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라기보다는 마음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08배와 <금강경>을 독송하고, 하루 동안 때 묻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108배와 <금강경> 독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혼란했던 마음, 복잡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들쭉날쭉했던 마음이 쉬게 되어요.”

하루를 살면 하루 산만큼 마음에도 때가 끼는데 아침저녁으로 마음의 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박 사장은 “이러한 수행이 베스트를 추구하되 베스트셀러 병을 걸리지 않게 만드는데”고 한다.

김영사는 세상의 지침이 되고 세상을 맑게 하는 NGO단체 유니세프, 녹색연합 등 15군데를 지원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러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회 공헌은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것이다. 저는 책 만드는 사람이니 좋은 책을 잘 만들어서 적정 가격에 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란다.

“김영사가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김영사 자체가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책이 되기를 항상 바란다”는 박은주 사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맑히는 커다란 에너지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108배와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 열고 닫는 수행자 같은 생활 “경영 키워드 정직·존중·나눔”... 녹색연합 등 15단체 지원

“김영사는 책을 만드는 데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자중심원칙’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내 가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은 없어요.”

김영사는 90여명의 직원이 일 년에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어떤 이는 사원 1인당 매출액이 대한민국

자들에게도 인세가 정직하게 돌아가지요.”

“가령 책 내용은 빈약한데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도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도 정직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책, 한 권의 책으로 꼭 세상에 나와야만 할 이유가 분명한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의 베스트셀러 몇 권을 꼽아본다면 <문명의 총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먼나라 이웃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앗! 시리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신화는

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入處皆眞)’의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디서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 열심히 일했기에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되어야 할 일을 한다. 이것이 제가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제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게 주어진 사람 인연, 일 인연, 상황 인연에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연연하여 일을 꾸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못하지요. 좋아보여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천도**  
**장량장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복대는 온열복대는 온열복대는 온열복대... (text partially obscured)

◆문의전화 :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